“단기출가 확대… ‘친숙한 불교’로 변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부처님오신날 봉축간담회서
불교문턱 낮출 방안 제시해
청년세대 꾸준한 소통 약속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진행된 봉축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단기출가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세대가 갖는 불교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진우 스님은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불기2568년 봉축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지난달 불교박람회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힙한 불교’라는 평을 받은 데 이어 조계사의 5박6일 청년·대학생 단기출가도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국민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으며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는 마음을 갖는 것 같다”며 “불교와 스님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있어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같은 캐릭터도 불교가 청년세대에 다가가려는 방편이 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취임 이후 줄곧 청년세대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강연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전한 진우 스님은 보다 더 다양한 형식으로 청년들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달려 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사회나 국가가 헝클어진다”며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는 꾸준히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우 스님은 또 종교인구 감소와 출가자 급감을 겪는 현실에서 조계종의 가장 큰 위기와 해법을 묻는 질문에 ‘개인주의’와 ‘분열주의’로 인한 사회현상을 원인으로 짚은 뒤 선명상 보급을 통한 정신문화의 전환을 대안으로 내놨다.

진우 스님은 “1970년대 인구가 4000만명 수준일 때도 2000만 불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5000만 인구에서 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제5차 산업혁명일 수 있는 정신문화혁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끝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일성이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천상천하는 과거·현재·미래와 동서남북·가운데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홀로 존귀하다는 뜻이지만 일반인들은 혼자 잘났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한다”며 “깨치면 시비와 고락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사라져 열반과 같은 완전한 편안함을 얻는다. 그 외에는 최고가 없기 때문에 유아독존이라고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각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미타요양병원 1주년…제2병동 신축 추진

5월 3일, 원내 법당서 기념법회
진우 스님 “전법에 큰 버팀목”
200병상 규모 목표로 내년 착공
지강 스님, 1억원 후원금 전달도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마치고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스님을 공경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을 기치로 문을 연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자축했다. 아미타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를 갖춘 병원으로 위한 제2병상도 신축, 스님들의 노후안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 조계종승려복지는 5월 3일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 6층 법당에서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아미타요양병원은 개원 후 1년 동안 종단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면서 임종할 때까지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전문요양병원으로서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스님들의 건강과 수행을 위한 요양병원의 발전과 종단 복지향상을 위한 후원에 힘써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신축 등 병원 확장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아미타요양병원은 스님 전문요양병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2병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설계용역에 후 2025년 착공식을 거행, 200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병원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전문의료진과 의료장비 보강 등을 통해 스님들의 건강과 안정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종도들이 종단의 승려복지제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표이사 호산 스님도 인사말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후원, 그리고 한마음으로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2~3년 후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산 스님은 “병원 설립자인 각현 스님의 원력을 이은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해봉당 자승 스님에게 파라밀요양병원 운영을 요청했지만 자승 스님은 종단 직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직영 요양병원이 문을 열 수 있었다”면서 처음 병원이 시작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축사에서 “종단스님들이 병고에도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면서 여법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힘써야 한다”면서 지원금 1억원을 후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대표해 사무처장 덕운 스님도 300만원 상당의 치약과 칫솔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안성=임은호 기자

청년들의 출가발심, 2기로 이어지다

조계사 청년단기출가 2기 성황
캐나다 출신 유학생 행자 눈길


조계사 청년단기출가 2기 행자들이 지난 4월 29일 청년전법을 위해 시작한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1기에 이어 2기로 이어졌다. 1기보다 더 많은 12명의 행자들이 발심한 가운데 캐나다 출신 동국대 유학생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사는 5월 5일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2기를 입재했다. 3일차인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단 주요 소임자스님, 조계사스님들과 108배 정진으로 하루를 시작한 행자들은 108배 정진 이후 곧바로 진우 스님과 차담을 가졌다.〈사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행자들의 발심 동기는 ‘교수님과 부모님의 추천’ ‘안내 홍보지와 SNS를 통해’ 등 다양했다. 그중 임울 행자는 “군입대를 앞두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큰 결심을 했다”고 칭찬하며 다른 행자들에게도 아낌없는 조언을 건넸다.

진우 스님은 “삶에 있어 출가의 기회를 갖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무척 소중한 경험”이라며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행정진하며 출가의 최종 목표인 근심과 걱정, 괴로움의 마음을 완전히 없애는데 한걸음 다가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행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지에 담아 주면 언제든 답하겠다고 약속하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 길선진 행자는 이름도 한국식으로 개명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길 행자는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복수전공하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학교에서 자주 만나는 스님들은 어떻게 수행생활을 하는지 궁금해 단기출가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 해보는 108배를 다시 떠올리며 웃음을 지은 길 행자는 “꽤나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낸 덕분에 보람찼던 시간”이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평소 지나치게 많았던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봉축 맞아 ‘천년을세우다’ 기금 잇달아

길상사 · 전등사 · 영평사 이어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동참해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 불사인 ‘천년을세우다’의 원만회향을 발원하는 사부대중의 성원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7일과 9일,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각각 기금전달식을 갖고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김재훈)로부터 기금을 받았다.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2000만원을 전달하며 “전법과 청년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고마움을 표하면서 “법정 큰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도량을 잘 가꾸고 청년전법의 도량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등사 주지에 재임된 여암 스님은 9일 “주지로서 맡은 소임에 열심히 임하겠다”며 불사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진우 스님은 감사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가람수호와 전법포교에 더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10일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세종불교 발전과 영평사 낙화법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는 기금 823만5000원을 전달하며 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이민우 기자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총본산 조계사,
세상과 함께하며 부처님법을 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